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강에서 나온  
왕자



저자: E. Duncan Hughes

삽화: M. Maillot, Lazarus

각색: M. Maillot, Sarah S.

번역: Koh Woon Choi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2010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총리 요셉이 죽게  
되었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의 슬픔을

함께  
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히브리  
사람 요셉을  
흉년에서부터  
나라를 구하도록

사용하셨다.



그는 지혜롭고 사랑  
받는 지도자였다.  
지금 그는 떠났다.



30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났다.  
요셉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  
안에서 힘있는 민족이 되었다.



새로운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왕에게  
반항할까 봐 두려워 하였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었다.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잔혹하게 다루었다. 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도시를 건설하도록 강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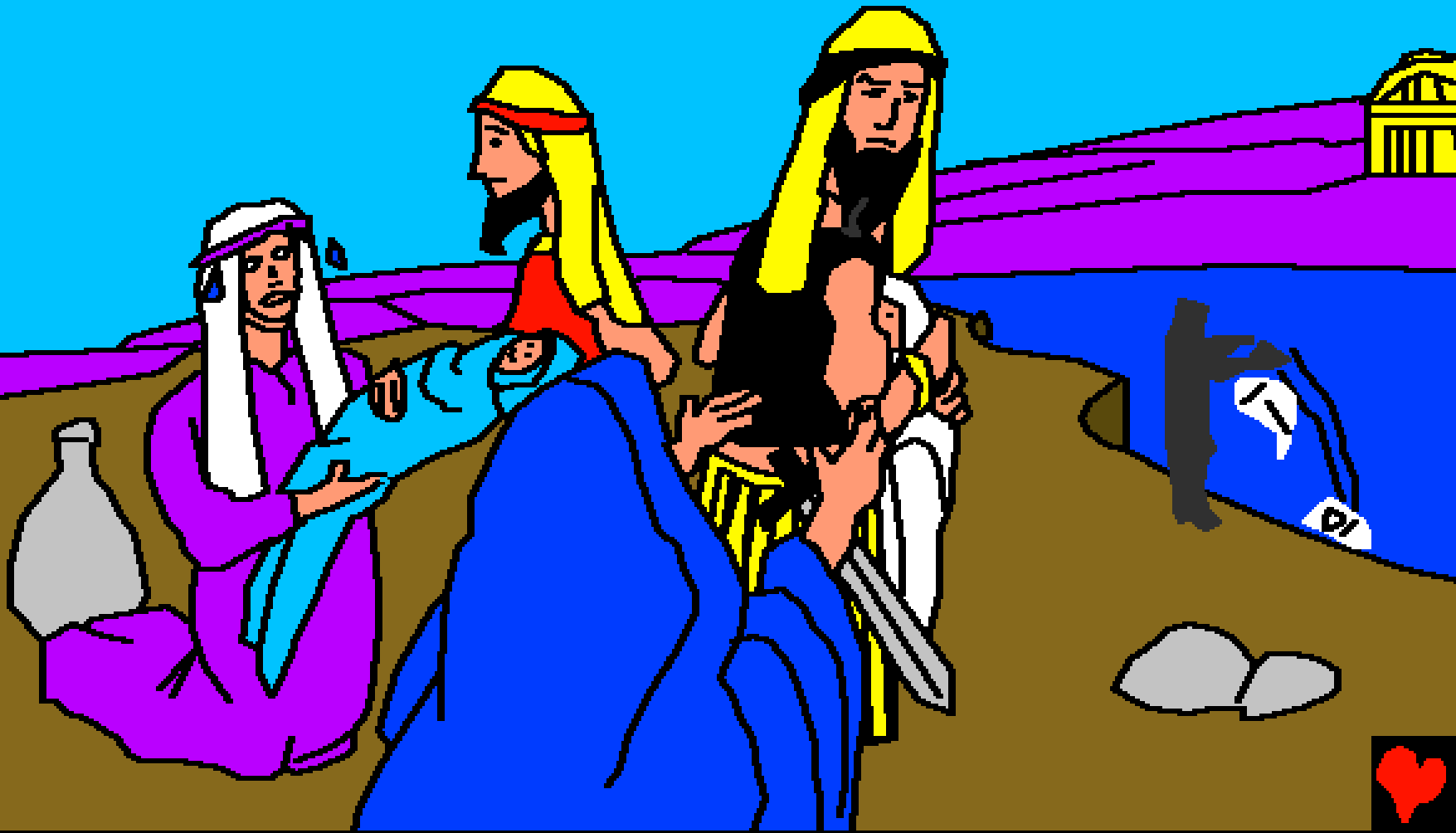
하지만 바로가 그들에게 아무리  
힘들게 일을 시켰을 지라도,  
히브리 노예들은 숫자적으로  
계속 늘어났다.



어느날, 무서운 명령이 바로에게서  
떨어졌다. "모든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반드시 나일강으로 던져  
버려야 한다."



사악한 바로는 히브리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결심하였다. 그는  
아기들조차 죽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은  
분명히 불안했을 것이다. 그들은  
아기를 나일 강에 놓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아기는 아늑한, 물이 들어오지 않는 바구니에 안에 있어야 했다.



그 귀중한 아기를 운반 하면서,  
작은 바구니-배가 갈대  
사이로 뚝뚝 떠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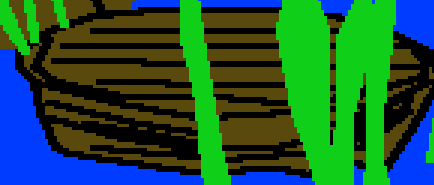
그 작은 아기에게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바구니가 갈대들 사이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 아기의 누나는 귀중한 바구니를 먼 곳에서 쳐다 보았다.



갑자기 바로의 딸과 그녀의 하녀가  
강으로 목욕을 하기 위해  
나왔다. 바구니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건곤 했다.



“어! 바구니다. 저기, 갈대 속에.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바로의  
딸은 그녀의 하녀에게 그  
바구니를 가져오도록  
명령했다. 그녀가  
바구니를 열었을  
때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공주가  
외쳤다.



“불쌍한 작은 아기. 넌 참  
아름답구나.” 바로의 딸은 아마도 많은  
어른들이 하는 방법으로  
아기에게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기의 누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음이 틀림 없다. 그녀는  
바로 딸에게 달려갔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히브리 사람을  
찾아 봐도  
될까요?”



“그렇게 해주렴” 이라고  
대답했다. 소녀가 달려가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일까?



“엄마! 빨리 와보세요! 빨리!” 아마  
소녀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함께, 둘은  
좁은 길을  
다시 달려  
갔다.



강가에 돌아 오자, 바로의 딸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나를 위해  
아기를  
돌봐줘.  
돈을  
줄게.



아기를 모세라고 불러야겠다."  
이는 내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 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부모님과 집으로 되  
돌아 왔다.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곧 그는 왕궁에서 바로의  
딸과 함께 살게 되었다.

모세의 생명을 살린

하나님께서서는

아기 모세를

위하여

계획된

큰

미래를

가지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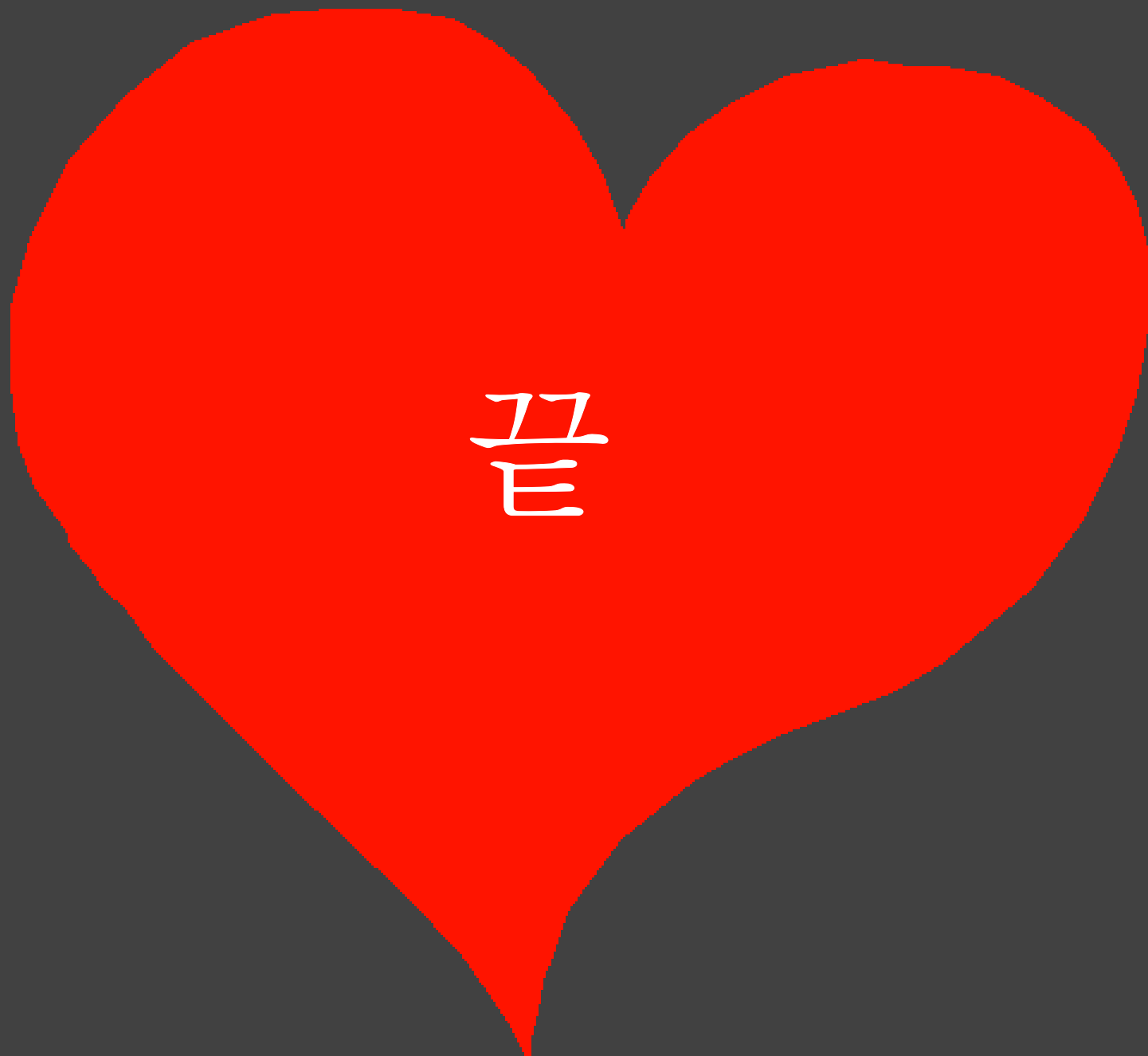
인간의 비애의 시작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